

반성해야 불교산다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4~7일 야단법석 열려



8월 4일 백양사 야단법석 입재식 모습

선지식 초청 백양사 야단법석이 '수행결과와 스승을 찾아 떠나는 길'을 주제로 8월 4일 백양사 참사당 수행관에서 열렸다.

이날 입재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을 대신한 법에서 "평상심인 도를 알고자 한다면 천진스럽게 자연에 맡겨야 한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한다. 모두가 인연 따라 얻어지는 것이나, 얻어지지 않는 것도 인연이다.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는 일이며! 본인은 자연인 줄 깨달으니 빗속에 맑은 달을 구경하고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 난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는 조신불교의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1953년 조계종단 정화 60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권 안팎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건강한 한국불교 발전에는 수행 외에는 해답이 없어 수행결과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마련했다"며 "늘 반성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자세가 계속될 때 건강한 승단, 종단, 불교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입재식에 이어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과를 주제로 한 강의로 법석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튿날인 5일에는 양산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이 '율장'에 담긴 수행결과, 함양 행복마을 회주 용

타 스님의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과를 법문했다. 6일에는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생명평화경'에 담긴 수행결과 '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과 의미 '를 강의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모색했다.

한편, 야단법석은 2009년 8월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과 11월 백양사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두 차례에 진행된 바 있다. (차주상보)

이상연 · 이은정 기자

"修行이 최우선이다"

야단법석 두차례 연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2009년 가을, 지리산 자락에서 열렸던 첫 번째 야단법석에서는 "죽비로 길들여진 수행 풍토는 선지식이 나오기 어렵다" "한국불교는 문중 파벌에 갇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등 조계종을 발칵 뒤집을 쓴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 번째 야단법석이 2009년 11월에 이어 2011년 8월 4~7일 백양사에서 열렸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3일 백양사 주지실에서 종단의 권력 쥔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야단법석을 여는 이유를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원죄를 씻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원죄는 화합하지 못하고 싸운 죄로 특히 주지·소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온 것이라 설명했다.

시몽 스님은 "종교인으로서 합치하고 반성하고자 자성·자정의 자리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성도 없으면 죽은 것 아니냐"고 반문도 했다. 스님은 야단법석을 시작한 향봉 스님과 각별하다. 하지만 "야단법석을 백양사에서 여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만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조계종은 최근 민족문화추진회 동과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시몽 스님은 "종단이 시의적절 하게 5대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성과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스님은 "100명 안팎의 승려가 종권을 쥐고 종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존중받아야 할 포교승 등 힘없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밀려난 지 60여 년이 됐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조계종 창종 이후 현대 한국불교사를 일제 불교의 잔

재로 인식했다. 일본 강점기 전 주지를 총무원이 임명하는 예가 없었고, 현행 교구본사제는 일본의 조선 불교 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소임에 집착하는 것은 염불(수행)보다 갯밥(돈)에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시몽 스님은 "세상이 경제·경영을 운운하는 것에 절집이 따를 이유는 없다"며 "출가자라면 수행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지만, 스님은 "출가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양나라 무제 등은 호국불교가 아니라 직접 선수행했다"라며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사회지도층이 직접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백양사 주지 취임 후 시설 확충보다 신도운동 전개에 마음을 뒤었다"고 말했다.

시몽 스님은 제주도 법화사 국고 지원금 관련 송사와 고불총림 총림 해제권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내 탓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백양사는 9월에는 쌍계루에서 60여 시인을 초청해 포은 정몽주(1337~1392)의 원운(原韻)에 시를 이어 읊는 시대회를 연다. 이어 10월에는 백양사에 주석했던 선지식 만암 스님(1875~1957)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풍류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6~18일이다. 후보자 자격 확정과 산중총회 구성원명부 확정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23일 열린다.

본선사 차기 주지로는 백화암 주지 정수 스님과 광동학원 이사장 화법 스님, 현 주지 인목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본선사, 26일 산중총회
차기 주지 선거는 삼파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본선사의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8월 26일 열린다.

남양주 본선사(주지 인목)는 "차기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8월 26일 오후 1시 본선사 청

이날은 기자들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잠자리 날개 같은 옷 입어야 하나"

불자들, 스님 모시옷 두고 토론 찬·반 갈려

절에 자주 다니는 불자라면 대형 사찰의 주지 스님을 비롯한 몇몇 스님들이 뽀뽀한 꼴을 먹인 고급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누더기 옷을 입은 스님과 고급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 누가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스님들의 여름 모시옷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제를 제기한 K씨는 "몇몇 스님들이 여름에 입고 다니는 모시옷. 마치 잠자리 날개 같은 고급 옷에 풀 잘 먹여 입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라며 "그것도 소위 큰 스님이라 불리는 높은(?)스님들이 그런 짓을 더 잘 합니다. 스님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P씨는 "부처님은 고행할 때 무덤에서 나온 옷감을 누더기 누더기 가사장삼을 만들어 입었다고 대중법문을 들은 적이 있다. 불자들은 아마도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연미복 같은 모시옷이 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속에 옷을 여러 벌 입어야 하는 스님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J스님은 "반팔, 반바지도 못 입고 게다가 속에 옷도 여러 벌 입어야 하는데 밖의 옷이라도 최대한 시원한 것을 입는 것도 안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풀 옷 들은 대체로 한번 마련하면 다들 몇 십년씩 입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부루나에서는 수행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시옷의 가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격 따지기 전에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재가자로서의 도리라는 여론이 대세였다.

K씨는 "재가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수행에 도움이 되는 옷이라면 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D씨는 "나에게 다 그냥 스님이다.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께 먼저 모시옷도 보시고, 멋진 모시옷을 입은 스님께도 먼저 합장 공양할 줄 아는 것이 불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이날은 기자



자승 스님, 자재암 복구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4일 폭우로 인해 사찰 축대가 붕괴되고 건물 일부가 토사에 의해 매몰된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을 방문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이번 폭우로 국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이번 폭우로 함께 피해 입은 천년고찰의 전통문화가 소실되지 않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관계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경찰과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격려금을 전달했고 본선사 주지 인목 스님은 자재암 주지 해남 스님에게 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BBS, 사장선출 논의
11일 이사회회의에서

BBS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 이사장 선임 > 신임 사장 선출 > 임원 및 감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는 이번이 없는 한 현 이사장 영담 스님의 재임이 확실시 된다.

문제는 공석 중인 사장 선출 문제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7월 6일 이사회에서 이채원 前 강릉 문화방송 사장과 신상진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이사를 불교방송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진흥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사장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제2회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

공모사업내용 :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사례 및 사회복지 연구부문

목적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창립자 이종대선생의 평소 신념인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우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연구를 장려하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임.

심사 부문 및 시상 내용

▶심사 부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사례 및 연구업적 부문

▶응모사업 대상 조건 프로그램사례 부문 - 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연구 부문 - 2010년 9월 1일~2011년 8월31일 출판 서적 또는 논문

▶시상 내용

프로그램 부문

- 대 상: 1,000만원(기관 7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300만원)
- 우수상: 500만원(기관 4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100만원)
- 장려상: 200만원(기관 15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50만원)

연구 부문 - 연구상: 300만원

- 불교 관련 사회복지프로그램실천사례와 연구의 경우 특별 가산점 부여.
- 대상의 경우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우수상 또는 장려상의 수상자로 복수 선정될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의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신청 자격

- 1)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의 사회복지사업자
- 2) 프로그램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사찰
- 3) 연구업적 부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의 연구자

▶응모방법 및 접수 마감

- 1) 응모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제출시 관련 내용이 저장된 CD 또는 USB 저장 홈페이지(www.chbuddha.com) 참조 이 메 일 (kty6060@hanmail.net)
- 2) 접수마감 :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구비 서류

▶사회복지프로그램사례 부문

- 1) 신청서(양식) 1부
- 2) 사업계획서(양식) 1부
- 3) 단체일 경우 정관 및 회칙 사본 1부
- 4) 관련 증명서류(사진, 스크린, 평가서 등) 1부
- 5)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사회복지연구업적(서적 및 연구논문) 부문

- 1) 신청서 1부
- 2) 서적 및 연구논문 1부
- 3) 불교신자 증명서(스님은 제외)

▶수상자 발표

- ▶시상 시기: 2012년 2월 중순
- ▶발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2.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재단사무실: 02)517-3052 연구소: 02)517-3045, Fax: 02)515-3021, 02)542-0519
신청 주소: (우편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2, 청호불교문화원 내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주최: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주관: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청 호 불 교 문 화 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